

DBpia

동아시아 고대신앙과 불교의 교섭 양상

삼국시대 불교의 토착신앙 수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Ancient Religion of Korean Peninsula and Buddhism in the age of Adoption of Buddhism

저자
(Authors) 정성준
Cheong, Seong-joon

출처
(Source) [단군학연구 \(28\)](#), 2013.5, 384-412(29 pages)
[Journal of Dangun Studies \(28\)](#), 2013.5, 384-412(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단군학회](#)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2205755>

APA Style 정성준 (2013). 동아시아 고대신앙과 불교의 교섭 양상. 단군학연구 (28), 384-41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1 10: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동아시아 고대신앙과 불교의 교섭 양상

- 삼국시대 불교의 토착신앙 수용을 중심으로 -

정성준*

- | | |
|-----------------------|------------------|
| I. 서언 | IV. 불교수용과정의 顯密交涉 |
| II. 한반도 고대신앙의 원류와 불교 | V. 결어 |
| III. 불교와 고대신앙의 교류와 변형 | |

I. 서언

불교가 지닌 고대종교와의 친화성은 인도불교 당시 힌두교가 지녔던 샤마니즘적 요소를 불교가 수용해왔던 대승불교의 역사에 기인한다. 대승불교의 경전에는 샤마니즘을 비롯한 인도 고대종교의 주술적, 제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깨달음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대승불교는 전파된 지역에 따라 철학적, 사상적 발전을 이루도록 정신, 문화적 자극제가 되었고, 고등종교로서 세련된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여 고대국가로부터 중세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다.

*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불교의 역사에 있어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할 당시 기존에 존속했던 토착종교와 갈등과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수용되었다. 불교는 토착종교의 다양한 요소를 섭화하면서 고구려, 백제, 가야를 비롯해 신라에 정착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제례적 요소와 주술적 소재는 한반도의 기성 종교집단이 불교를 친화적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지닌 주술적, 의례적 소재는 3, 4세기경 이후 인도 대승불교시대에 성립되기 시작한 밀교경전에서 발견된다. 밀교의 시대구분상 초기밀교는 주로 인도 힌두교의 샤마니즘적 소재를 불교로 전화해 인도의 대중들을 불교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었으나, 7세기 중엽에 성립된 밀교는 불교의 의례적 요소를 이루는 진언이나, 다라니, 만다라를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과 국가나 재난 보호의 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불교 수용기에 불교가 기존의 토착종교를 수용하면서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민족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기틀을 다진 내력을 살펴보고, 고대종교의 다양한 소재의 수용에 대해 밀교가 관여한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한반도 고대신앙의 원류와 불교

1. 한반도 고대신앙과 불교교섭

고대국가의 형성기에 전래된 불교는 시대적 변화에 의해 국가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존의 고대종교와 융합하면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대체로 A.D. 4세기 후반

으로 기록상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에 전진왕 부견이 사절과 부도승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하니 왕은 사신을 보내어 회사하고 방물을 전하였다. 대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 3년에 비로소 율령을 반포하였다.”¹⁾라고 하여 불교와 유교가 동시에 전래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성장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신라는 기존의 토속신앙과 갈등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불교가 겪었던 기존신앙과의 갈등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기록상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 존재했던 고대신앙의 면모를 오늘에 전한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신앙은 하늘신앙을 비롯해 산천, 바다, 별, 모신 등 다양한 종교형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기록에서 보이는 고대종교의 5월과 10월 제사는 “농경의례의 성격이 강한 제천행사”²⁾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졌던 행사들은 고대종교와 지배세력이 강력하게 결합함으로써 피지배층을 확고하게 지배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대신앙과 정치세력이 결합하여 한반도를 지배한 내력은 다양한 설화와 왕들의 탄생신화에 나타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최치원의 저작인 「釋利貞傳」에서 가야의 산신이 감응하여 수로왕의 선조가 된 내력이 전해지는데,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본래는 대가야국이다. - 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에게 이르기까지 무릇 16세 520년 동안이다. (최치원의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

1)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 이기동, 「신라인의 신앙과 종교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통해서」, 『경주사학』 16집, 1997, 66쪽.

산신 정건모주는 곧 천신 이비가의 감응이 되어 대가야왕 너질주일과 금관 국왕 너질청에 2인을 낳은 즉 너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하였다.³⁾

한반도를 지배했던 토속신앙이 당시 정치지배이념으로 존재한 증거는 산신신앙의 주체가 곧 지배세력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불교가 도입된 후 불교는 기존의 토속신앙을 대치해 나가면서 새로이 수용된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착한다. 예를 들어 아쇼카왕에서 보이는 정치철학이 한 예가 된다고 하겠다. 삼국통일 전쟁 당시 신라의 법흥왕은 불교 공인 이듬해 살생을 금지했는데, 이것은 아쇼카왕의 불살생의 칙령에 버금간다.⁴⁾ 또한 전쟁 전사자를 위해 진흥왕은 전사자들을 위해 7일 동안 八關齋를 베풀었는데,⁵⁾ 이처럼 불교가 한반도에 수용된 배경은 가야를 비롯해 삼국이 도모했던 국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치와 윤리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대종교와 불교의 밀교적 소재의 친화성

대승불교 시대에 성립된 密敎⁶⁾는 인도의 주술적 소재들을 불교적

3) 本大伽倻國 - 自始祖伊珍阿鼓王 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青裔二人 卽惱室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新增東國輿地勝覽』 29, 高靈縣 建置沿革)(번역은 이기동, 전개논문, 66쪽에서 재인용).

4)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6年.

5)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3年.

6) 密敎란 용어는 중국의 不空삼장에 의해 처음 번역된 것으로 밀교 성립 이전의 대승불교는 顯敎라고 부른다. 인도불교에서는 현교와 밀교에 대해 각기 波羅蜜門과 眞言門으로 부르고 있다(정성준, 『밀교학의 기초지식』, 이스트

으로 승화한 것이다. 밀교는 시기적으로 초기·중기·후기밀교로 구분될 수 있는데, 초기밀교는 3, 4세기경 인도 굽타왕조에 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진언, 다라니, 의례를 중심으로 인도종교의 속화된 주술신앙이 대승불교 가운데 대부분 수용되었다. 밀교의 성립은 인도종교의 주술적 소재들을 불교에 전입해 저급한 습속에 몰입한 인도대중들을 불교의 연기와 공사상에 입각한 불교적 정신으로 승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인도의 주술과 종교적 의례, 천문, 의학, 제신의 섭화 등의 요소들이 초기불교의 중심 소재가 되었다.⁷⁾

초기밀교 경전이 지닌 힌두교와 외래종교에 대한 섭화력은 한국불교를 비롯해 중국, 티벳, 일본 등 동북아 대승불교 지역의 불교에 대해 지역의 토착종교를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지역에 나타난 불교전파의 공통적 양상은 처음에는 지역의 토착종교와 불교가 갈등하는 양상이 발생하지만, 이후 불교의 밀교적 소재가 지닌 외래종교의 수용력과 친화력을 통해 지역의 종교와 공존하고 융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불교의 경우도 많은 서역승들의 활약으로 밀교경전이 중국에 번역되었고, 밀교의 神異를 보여 중국왕과 황제들이 귀하게 여겼는데, 한반도 지역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불교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다.

불교의 중국전파의 경우 불교와 주변종교의 갈등과 섭화의 양상은 『文殊師利發願靈驗錄』에 따르면, “後漢의 明帝가 佛法을 전하러 온 竺法蘭 등을 만났다. 그때 天竺의 승려가 말하기를 ‘이 나라 五台山에는 文殊보살이 계셔서 天人·龍王·神人들을 교화하지만 戒律과 禪

위드, 2007, 24쪽).

7) 초기밀교 시대 이후 인도의 밀교는 크게 변모하여 7세기 중반부터 진언과 다라니, 만다라 등의 의례를 통해 정각을 지향하는 瑜伽法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정성준, 앞의 책, 46~47쪽).

定을 닦지 않는 자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오대산에는 道教를 받드는 道士들이 있었는데 道·佛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神通을 시험하도록 하였다. 즉 兩教의 聖典을 壇위에 쌓아 놓고 불을 질렀는데 道教의 典籍들은 모두 불타버렸으나 佛經은 타지 않았는데, 그 靈驗은 모두 오대산 文殊보살의 영험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⁸⁾ 『高僧傳』에 따르면 축법란은 중천축 사람으로 중국에 온 이후 『四十二章經』을 비롯한 초기경전을 번역하였다.⁹⁾ 오대산의 문수신앙은 『화엄경』의 번역 이후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후한시대에 일어난 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기성종교로서 중국의 도교와 불교가 갈등하면서도 불교가 天人·龍王·神人 등의 토착종교적 요소를 교화한 양상은 東晉시대(317-420) 이후 본격적으로 지속되는데, 특히 동진시대에는 佛圖澄 같은 서역승들이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불교의 밀교적 呪法으로 石勒과 같은 왕들의 귀의를 받았다.¹⁰⁾

한국불교의 경우 한반도에 최초 밀교의 승려가 방문하여 밀교경전을 번역한 내력은 최치원이 찬술한 「의상전」에서 볼 수 있다. 『해동고승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의상은 진평왕 건복 42년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성인 安弘法師가 서국의 세 삼장 중국 승려 2인과 더불어 당나라로부터 왔다. 주에 이르기를 北天竺 烏菟國 毘摩羅眞諦는 나이가 44세이며 農加陀는 나이가 46세이며 摩豆羅國 佛陀僧伽는 나이가 46이다. 52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이르렀다가 우리나라로 왔다. 황룡사에 머물면서 『旃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는

8) 『文殊師利發願靈驗錄』, 法寶院, 1967, 79~86쪽.

9) 『高僧傳』 권1(『大正藏』50, 323a쪽), “竺法蘭亦中天竺人 自言誦經論數萬章 爲天竺學者之師 時蔡愔既至彼國 蘭與摩騰共契遊化 遂相隨而來 會彼學徒留礙 蘭乃間行而至 既達雒陽與騰同止 少時便善漢言 愔於西域獲經卽爲翻譯 十地斷結佛本生法海藏佛本行四十二章等五部 移都寇亂四部失本不傳 江左唯四十二章經 見在”.

10) 정성준, 앞의 책, 60쪽.

데, 우리 승려曇和가 글을 받아 썼다. 얼마 안 있어 중국 승려가 돌아가기를 청하니 왕이 허락하여 그를 보냈다.¹¹⁾

위에서 중국승려로 알려진 세 삼장이 번역한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은 경명에 나타난 星光을 미루어볼 때 星宿신앙과 관련 있는 밀교경전으로 짐작된다. 기록상 서역승들의 최초 방문 이후 신라승으로서 주술을 행했던 승려의 기록은 『삼국유사』 권4 「圓光西學條」 『殊異傳』의 내용을 소개한데서 보인다. 원광법사는 30세 되던 해 삼기산에서 홀로 수도하고 있을 때, 주술승이 삼기산 산신의 심기를 건드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¹²⁾ 산신은 원광으로 하여금 중국에 유학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처럼 초기 불교의 유전은 원광과 같이 토속종교를 대변하는 산신과의 협력과 주술승에 대한 적대적 관계가 혼재한 양상을 보여준다.¹³⁾

「원광서학조」의 예에서처럼 신라에 존재했던 토착신앙은 초기에

11) 「安舍傳」 「流通」 『海東高僧傳』 卷2(『大正藏』50, p.1021c), “崔致遠所撰 義相傳云 相眞平建福四十二年受生 是年東方聖人安弘法師 與西國三三藏 漢僧二人至自唐 注云 北天竺烏菴國毘摩羅眞諦 年四十四 農加陀 年四十六 摩豆羅國佛陀僧伽 年四十六 經由五十二國 始至漢土 遂東來 住皇龍寺 譯出旃檀香 火星光妙女經 鄉僧曇和筆授 未幾漢僧上表 乞還中國 王許而送之”.

12) 『海東高僧傳』 卷2 「釋圓光傳」(『大正藏』50 1020c~1021a); 『三國遺事』 卷4 「義解5」 「圓光西學條」.

13) 서운길 교수는, “이 주술승에 대하여 일반 史學界에서는 ‘무당에 가까운 존재’李基白 ‘佛敎의 受容과 固有信仰’(韓國史의 再照明 p.93).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전하는 『삼국유사』와 『海東高僧傳』에서는 주술승을 ‘比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가 절(蘭若)을 별도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술승이 만약 ‘무당에 가까운 존재’였다면 그 당시 무당들의 임무로 보아 그는 분명 산신 등을 섬기는 존재였을 것인데, 왜 산신이 오히려 그를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후사정으로 보아 이 주술승은 잡밀(雜密) 즉 인도에서의 초기밀교 계통이긴 해도 밀교의 주술을 수행하던 승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서운길, 「신라 의림선사와 그의 밀교사상」,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115쪽).

형성되었던 불교와의 적대적 대립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상호친화적인 관계가 더욱 진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교 가운데 특히 하늘, 산신, 용왕 등의 기존신앙과 친화력이 있는 불교의 밀교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불교와 고대신앙의 교류와 변형

1. 토속신앙과 밀교의 교섭

1) 祭天신앙

한국을 포함해 고대종교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주로 ‘하늘’과 ‘태양’이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종교 의식’¹⁴⁾을 살펴보면, 5월과 10월에 지냈던 국가적 제사는 “농경의례의 성격이 강한 제천행사”로 평가되고 있다.¹⁵⁾

곽만연 교수는 한국 고대종교는 자연신교적 태양신에서 발달한 ‘하늘임’을 최고 지배신으로 하는 무교(巫敎 또는 祭天敎)였으며, 이런 종교 관념을 배경으로 성립된 부족연맹 국가의 지배세력은 삼국에 새로운 異系 왕실이 등장하였을 때는 종교적 권위를 계승한 귀족세력으로 변하여 왕권을 심히 제약하고 있었다고 하여 정치세력과 하늘, 혹은 태양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피력하고 있다.¹⁶⁾

14)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後漢書』 卷30, 「韓傳」.

15) 이기동, 「신라인의 신앙과 종교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통해서」, 『경주사학』 16, 1997, 66쪽.

16) 곽만연, 「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72쪽.

한반도 고대종교의 제천의식은 불교가 수용된 후 제석으로 전환되는데, 『삼국유사』의 단군 기사에서 桓因을 “天神”이 아니라 “釋帝”라 해석한 것은 불교적 세계관 또는 신앙 풍토 측면에서 그 桓因의 성격을 하늘을 주재하는 최고신으로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¹⁷⁾

2) 星宿신앙

불교경전으로서 星宿, 즉 별신앙을 다룬 최초의 밀교경전은 후한 桓帝(147-167) 시기 安息國(Parthia, B.C.240-A.D.227)의 승려인 安世高의 『舍頭諫經』의 번역을 계시로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¹⁸⁾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성숙신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如來의 격으로 격상된 熾盛光如來 신앙이며, 다른 하나는 北辰菩薩로도 불리는 妙見菩薩 신앙이다.¹⁹⁾ 어느 쪽이든 모두 밀교경전에 기인한 사상을 전개시키는 점에선 동일하다.

日月星宿를 권속으로 다스리는 熾盛光佛頂(Prajvalošṇiṣaḥ 鉢羅入縛囉鄔瑟泥沙)은 석가불의 화신이다. 『熾盛光陀羅尼經』에 따르면, “나는 지금 과거 沙羅王如來가 설법한 熾盛光大威德陀羅尼除災難法을 설한다. 만약 國王 大臣이 거처한 곳과 여러 國界가 혹 五星의 凌逼을 받고, 羅睺 彗孛 妖星이 비추는 소속 本命宮宿 및 諸星位가 혹 국가의 帝座나 分野處에 임하여 능뵈하고 障難을 할 때에는, 淸淨處에 道場을 설치하여 이 다라니를 108번 혹은 1천 번을 하루에서 이레 동

17) 金一權, 「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백제의 北辰妙見과 고려의 熾盛光佛 신앙을 중심으로」, 『佛敎研究』18집, 한국불교연구원 2001, 77쪽.

18) 竺法護 역,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大正藏』21, 410쪽); 竺律炎 支謙 共譯, 『摩登伽經』(『大正藏』21, 399쪽).

19) 金一權, 「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백제의 北辰妙見과 고려의 熾盛光佛 신앙을 중심으로」, 『佛敎研究』18집, 한국불교연구원, 2001, 76쪽.

안 염송하면 일체 재난이 소멸되며 위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太白 火星이 南斗에 들어가 國이나 家 및 分野處에 障難을 지으면 一忿怒像의 佛畫 앞에 都嚙形을 설치하여 이 다라니를 守持 念誦하면 재난이 제거되고 왕명을 거슬리고 패역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질 것이다.”²⁰⁾라고 하여 天體의 星宿신앙이 국가와 자연재해를 막는 신앙으로 승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성속신앙은 帝釋天과 九曜신앙등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요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나아갔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칠성신앙이지만, 칠성신앙은 조선조에 성립된 신생신앙으로 구요신앙이 보다 활발히 신앙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산악신앙과 용왕신앙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신라인들에게는 산천을 경외하는 습속이 있어 경주 남산을 비롯하여, 五岳三山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다수 발견된다.²¹⁾ 불교가 도입된 이후 산악숭배는 특정한 산이 어느 보살의 주처라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관련된 영험의 사례를 다수 남기고 있다.²²⁾ 산악숭배는 산 자체를 숭배하기보다 산을 관장하는

20) 『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大正藏』19, p.337), “我今說過去娑羅王如來所說 熾盛光大威德陀羅尼除災難法 若有國王及諸大臣所居之處及諸國界 或被五星陵逼 羅睺彗孛妖星 照臨所屬本命宮宿及諸星位 或臨帝座於國於家及分野處 陵逼之時 或退或進作諸障難者 但於清淨處置立道場 念此陀羅尼一百八遍或一千遍 若一日二日三日乃至七日 依法修飾壇場 至心受持讀誦 一切災難皆悉消滅不能爲害 若太白火星入於南斗 於國於家及分野處作諸障難者 於一忿怒像前 畫彼設都嚙形 厲聲念此陀羅尼加持 其災即除移於不順王命悖逆人身上”(곽만언, 전계논문에서 번역 재인용, 98쪽.

21) 정병조, 「新羅時代 地藏信行的 研究」, 『佛教學報』 19집, 1982, 15쪽.

22) 新羅의 山岳崇拜는 五岳三山 信仰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眞平王代에 이르면 이 山岳崇拜는 佛敎와 習合된 痕跡이 있다(정병조, 「新羅時代

산신, 또는 여산신에 대한 숭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원광서학조」를 비롯해 여러 산신이 등장하는데, 산신, 또는 여산신은 모두 신라에 존재했던 토속신앙의 전통적 면모를 간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의 경우 산악신앙의 변화는 산신 대신에 산천에 대한 불국토로의 변화이다. 그 한 예가 오대산신앙인데, 인도·중국·일본 등지에 모두 오대산신앙이 있는데, 신라의 자장은 당 정관10년에 유학하여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너의 나라 동북방의 명주계에는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가 항상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가서 뵈어라”라는 부촉을 받고 귀국하였다고 한다.²³⁾ 자장은 오대산에 들어가茅屋을 짓고 7일 동안 기도를 하였으나, 응험이 없었고, 다시 태백산 갈반지로 가서 석남원을 세우고 문수의 내방을 받았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한다.²⁴⁾

자장에 의해 시작된 오대산 신앙은 정신대왕과 그의 두 태자인 보천과 효명에 의해 크게 번창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느 날 형제가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예하러 올라가니 동쪽 臺 만월산에는 1만 관음보살의 진신이 나타나 있고, 남대 기린산에는 팔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지장보살이 나타나 있고, 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대세지보살이 나타나 있고, 북대 상왕산에는 석가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5백의 대아라한이 나타나 있고, 중대 풍노산(지로산)에는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나 있다”²⁵⁾라고 되어 있는데, 오대산신앙에 대해서는 밀교의 만다라로 간주하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산신, 또

地藏信行의 研究, 『佛教學報』 19집, 1982, 15쪽.

23)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皇龍寺九層塔條」.

24)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慈藏定律條」.

25) 『三國遺事』 卷3, 「臺山五萬眞身條」.

는 산악숭배에 대한 불교적 변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리탑신앙의 경우도 산악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리탑신앙은 본래 후대 『無垢淨光陀羅尼經』²⁶⁾에 기인한 것이지만, 후대 道誥국사에 의해 선양된 裨補思想²⁷⁾은 신라 전역의 산야에 걸쳐 절과 사리탑을 세움으로써 병든 산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리탑이 不純한 산악을 복속시키려한 사정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악과 더불어 용신에 대한 숭배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신앙으로 『삼국사기』 「始祖赫居世居西干」에는 용-왕후-老嫗(巫)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²⁸⁾ 또한 이 기록에서는 신궁-황룡-사찰건립의 관계가 보인다. 하늘 숭배를 위한 신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황룡이 나타나 신궁은 황룡사로 건립된 것인데, 하늘 숭배의 전통이 용신을 매개로 불교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황룡사 건립 이후, 신라의 왕실과 대소사에 있어 황룡사가 중시된 내력은 용신과 불교 문화간의 접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원광서학조」를 비롯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산신이나, 기타 자연신과 불교와의 친화성을 표현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산악과 용신 신앙이 불교에 친화적으로 수용되면서 공존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26) 『無垢淨光陀羅尼經』(『大正藏』19, 717c~721b쪽).

27) 서윤길 교수는, “삼한산수도 三韓山水圖를 놓고, 3,800곳을 골라 점을 찍으면서, “사람에게 병이 들었을 때 혈맥을 찾아 침을 놓고 땀을 떠서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산천(국토)의 병(내우외환)이 들었을 때는 이 점찍은 곳에 절과 불상과 탑을 세우면 그 병이 나올 수 있다”(朝鮮寺刹史料) 下, 377)라고 하였다. 도선의 이러한 법을 사탑비보사상이라 하거니와 그는 이러한 밀교적 비법으로써 선의 토착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윤길, 『한국 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33쪽).

28)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始祖赫居世居西干」.

29)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4年」.

4) 母神(女性)신앙

고대신앙 가운데 모신은 여성 신격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출산, 육아와 생산, 가족사 등과 관련한 신앙으로 일찍이 존재해왔다. 한국의 고대종교에서도 모신신앙의 흔적은 다수 나타나며 불교가 들어 온 이후 고대종교의 모신은 불교의 여성보살신앙으로 점차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仙桃聖母隨喜佛事」³⁰⁾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 비구니가 꿈에 仙桃山 聖母의 敎示를 받아 佛殿을 수리하였다. 敎示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 자리 밑에서 金을 꺼내어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佛과 六類聖衆과 여러 天神들, 널리 五岳의 神君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해마다 봄·가을에 열흘 동안 善男善女를 모아 一切衆生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베풀되 항상 이것을 지키라.”³¹⁾

위에서 선도산의 성모는 여산신을 가리키며 53불과 오악의 신군을 함께 그려 넣은 것은 불교와 토속신앙이 공존하는 계기를 확인시켜 준다. 선도산 聖母 이 安興寺 불전 수리를 도와주었고, 이후 매년 봄과 가을 열흘 동안 점찰법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내용인데, 모신인 女山神에 대한 숭배는 한반도 고대신앙에도 모신신앙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모신신앙의 형태 가운데 佛母로서 관세음보살 신앙이 잘 알려져 있지만, 북극성 신앙에 가탁한 妙見菩薩의 신앙도 모신신앙의 한 부류로 평가된다. 東晉(317-420) 시기의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에는, “나는 北辰菩薩인데 이름을 妙見이라 한다. 지금 神呪를 설

30)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仙桃聖母隨喜佛事」.

31) 『三國遺事』 卷5, 「感通」 等七.

하여 모든 國土를 옹호하고 매우 奇特한 일을 지으므로 妙見이라 이름한 것이다. 염부제에 처하여서는 못 별들 중에서 가장 수승하며 신선 중의 神仙이며 보살의 大將이며, 모든 보살을 光目케 하고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제한다.”³²⁾라고 설해져 대보살로서 중생구제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경전의 이역인 『妙見神呪經』의 경우, “묘견보살은 모든 별의 星母이며, 북두칠성은 그 권속으로 간주된다. 북두칠성 중 武曲星 옆의 輔星을 星母라 하였는데, 북두 등을 출생시키기 때문에 칠성은 그 권속이 된다고 한다.”³³⁾한 것도 묘견보살이 가진 모신적 속성이 성숙에 대한 신앙과 결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치병

한반도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을 비롯한 고대신앙의 한 형태는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醫巫의 존재는 전세계 샤머니즘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불교의 경우 초기불교부터 治齒呪와 治毒呪가 있었지만, 초기밀교 경전에 의술의 면모가 명확히 드러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墨湖子가 처음으로 신라에 불법을 전할 때 燒香發願으로 王女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전해지는데,³⁴⁾ 阿道(我道)

32)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大正藏』21, p.536).

33) 『妙見神呪經』云 “北斗輔星者 妙見 輔相也.” /口云 “妙見者 武曲星傍輔星是也. 此輔星爲諸星母. 出生北斗等故, 道場觀 以北斗七星爲眷屬也.” /或云 “妙見者 則七星中第六星. 輔星卽妙見也. 七星中 尊星兄 妙見弟也.” /水曜云 “妙見也 胎藏曼荼羅 蓮花部內尊也.” :『白寶口抄·妙見法』 권148, 265쪽; 곽만연 교수는, “불교의 천문만다라 체계는 이상의 묘견보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묘견을 북극성 신격으로 보든 또는 보성으로 보든, 우주의 중심 상징성과 못 별의 근원적인 母體性이라는 중의적 성격과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곽만연, 전개논문, 79쪽에서 재인용).

3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15年.

도 당시 醫巫의 효험도 없던 盛國公主의 병을 치유해 昧鄒王을 기쁘게 한 내용이 등장한다. 왕이 아도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다만 천경림에 절을 세워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국가의 복을 빌 수 있지만 바랄 따름입니다.”³⁵⁾라고 한 사실에서 최초 신라의 전통무와 불교의 대면을 전한다.

목호자와 아도가 행한 치병의 방편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藥師經』을 비롯해 밀교의 誦呪가 유행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선덕여왕대(579~640)에는 密本法師가 있어 여왕과 승상 金良圖의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온다.³⁶⁾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불교승려와 여우로 가탁된 산신이 협력하여 치료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밀본법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³⁷⁾ 다른 지역의 전통무

35) 『三國遺事』 卷3, 「興法」 第3.

36) 『三國遺事』 卷5. 神呪6 「密本摧邪條」.

37) 선덕여왕(善德女王 632~646 재위)이 병든 지 오래되어 흥륜사(興輪寺)의 승려인 법척(法揚)이 불려와 진료를 맡은 지 오래되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밀교승려로서 덕행이 높았던 밀본법사(密本法師)가 불려와 왕의 침실에서 약사경(藥師經)을 독송하였다. 경을 다 읽자마자 스님이 가졌던 육환척(六環杖)이 침실로 날아들어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찢러 뜯 아래로 넘어뜨렸다. 그러자 왕의 병은 곧 나았다. 그리고 승상 김양도(金良圖)가 어렸을 때에 입이 불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큰 귀신이 작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음식을 모두 먹으며 설쳐대는 것이 보였다. 무격(巫覡)이 와서 제(祭)를 지내면 귀신의 무리들이 다투어 모욕하므로 양도가 멈추게 하고 싶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부모가 법류사(法流寺)의 스님 한 분을 청하여 경을 독송케 하였는데, 대귀(大鬼)의 명령을 받은 소귀(小鬼)가 철퇴로 승려의 머리를 내려치니 피를 토하고 엎어져 죽었다. 그 뒤 사람을 시켜 밀본법사를 모셔오게 하였는데, 법사가 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도 귀신들은 모두가 창백한 얼굴빛이 되었다. 잠시 후 사방에서 금갑옷을 낀 창으로 무장한 대력신(大力神)이 나타나 못 귀신들을 결박하고 이어서 무수한 천신들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는데 밀본법사가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법사가 경전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병은 낫게 되었다(『三國遺事』 卷5. 神呪6 「密本摧邪條」(서운길, 『한국밀

속과 같이 고대종교의 한 신앙태도 치병이 있는데, 惠通의 경우도 總持法(眞言法)으로써 신문왕의 등창을 고치는 사례가 있는데,³⁸⁾ 여기서 총지법은 곧 밀교이다.

일본법사나 해통과 같이 병을 치료한 기록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고대종교와 불교의 치병이라는 공감대는 양 종교의 친화성을 심화시켰을 것이라 생각된다.³⁹⁾

2. 국가·사회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착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고대신앙을 대치해 삼국의 사회에 제공한 정치, 사회적 통치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체나 산악 등의 외적인 요소를 맹목적으로 신앙하던 원시종교와 달리 국가와 백성, 자연간의 합리적 관계와 인위적 노력의 선양은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때 불교가 제공했던 교리는 因果와 業說이 그 중심이 되었다.⁴⁰⁾

小獸林王 2년(372) 고구려에 온 順道는 당시 사람들이 質朴했으므로 “因果로 교시하고 禍福으로 說誘하였다.”고 하였고, 故國壤王 8년(391)

교사상사』, 운주사 2006, 24-25쪽에서 인용).

38) 『三國遺事』 卷5 神呪6. 「明朗神印」; 「惠通降龍條」.

39) 눌지왕 때에 승려 墨胡子가 향을 통해 왕녀의 병을 치료하고, 미추왕 3년 승려 阿道는 成國公主의 병을 치료한 기록이 있다(『三國遺事』 卷3, 興法 第3, 「阿道基羅」).

40) 하늘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교의 업설은 그런 귀족세력의 사상기반을 해소하여 왕권강화와 국가발전에 유용한 사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업설이 애초에 그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흥불시책(興佛施策)을 통해 삼국사회에 급속도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윤리적인 방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꼭만연, 「신라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72쪽).

의 하교에도 “불법을 崇信하여 복을 구하라.”⁴¹⁾는 말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백제 17대 阿莘王 1년(392)의 하교에도 보인다.⁴²⁾

신라불교는 고구려와 백자로부터 150여년 이후 異次頓·法空, 法興王·阿道·墨胡子 등의 불교 역할 이후 사상적으로는 明觀·智明·圓光·慈藏 등의 역할에 의해 크게 비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흥왕대(眞興王代 540~575)의 轉輪聖王 사상, 미륵신앙, 화랑 제도창설 등은 모두 기존의 토착종교에 대해 새로운 사회질서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된 것들이다.⁴³⁾

원광의 경우 중국에 유학하여 唯識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백고좌도량을 열고, 세속오계를 선양하고, 불교 경전을 강의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⁴⁴⁾

자장의 경우 華嚴學에 바탕을 둔 護法的 기풍의 사상가로 평가되는데,⁴⁵⁾ 자장은 7세기 중엽 善德여왕 때 皇龍寺 九層木塔을 세우고, 관료체재를 정비하여 衣冠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장은 귀국 후 청량산(靑涼山 혹은 五台山)의 문수보살의 石像이 있는 곳에서 7일간 기도하고 문수보살에게 梵語로 된 계송을 받았는데, 이때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대 나라의 국왕은 인도 刹利 종족의 왕인데 이미 佛紀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또 東夷共工(중국 舜임금 시대의 야만족의 하나)의 종족과 같지 않다. 그러나 산천이 험악한 까닭에 인성이 거칠고 그릇되어

41) 『三國史記』 卷18, 「故國壤王 8年」.

42) 『三國遺事』 卷3, 「難陀闢濟」.

43) 곽만연, 「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67쪽.

44)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圓光西學」.

45) 정병조, 「慈藏의 文殊信行 研究」,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10쪽.

邪見을 많이 믿어서 간혹 天神이 화를 내린다. 그러나 多聞比丘가 나라 안에 있으므로, 君臣이 평안하고 만민이 화평하다.⁴⁶⁾

위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신라에 유행했다고 알려진 邪見은 불교 이전의 토착종교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천신의 화를 입었다는 것은 자연이나, 천체적인 재해를 입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多聞比丘는 신라에 이미 활동하는 승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로 인해 신라가 화평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자장은 문수보살의 권고에 의해 황룡사탑을 세우게 되는데⁴⁷⁾, 황룡사의 구층목탑이 세워진 이유는 신라 인근의 침입을 막고자하는 호국적 원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⁴⁸⁾

또한 원광법사는 점찰법회를 위해 ‘寶’를 시설했다고 전해지는데, 원광법사가 점찰보를 설치했다는 기록은 그가 세속오계를 통해 불교적 사회윤리를 제시했던 인물로 평가되며, 嘉熙岬에 占察寶를 설치한 기록이 있다.⁴⁹⁾

46) 그 계승은 다음과 같다. “呵羅波佐曩 達○○法野 曩伽四伽曩 達○盧舍那”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崔南善編, 192쪽) 정병조교수는 그 揭頌의 뜻은 ‘了知一初法 自性無所有 如足解法性 卽見盧舍那’라고 해석하였다(정병조, 「慈藏의 文殊信行 研究」,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25쪽).

47) 문수보살은 “황룡사 호법룡(護法龍)은 내 장자(長子)로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절에 구층탑을 세우면 좋으리라.”라고 하였다(『三國遺事』 卷3, 「皇龍寺九層塔」, 편).

48) 선덕여왕의 간청으로 귀국한 자장은 황룡사에 구층 목탑(九層木塔)을 세워 인근의 침입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 탑의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오월(吳越), 4층은 타라(訶羅), 5층은 응유(鷹遊), 6층은 말갈(靺鞨), 7층은 단국(丹國), 8층은 여구(女狄), 9층은 예맥(穢貊)을 상징한다(정병조, 「慈藏의 文殊信行 研究」,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27쪽에서 인용).

49) 寶의 기원과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불교사원의 경제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토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無盡思想이다. 이는 원시불교의 무소유 사상에서 비롯된다. 불교사원은 시주받은 재물을 민간에 대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빈민구제 사업의 자금으로 할

점찰법은 『占察善惡業報經』 2권에 근거한 것인데, 圓光과 더불어 자장에 의한 점찰교법도 8세기 초에는 매우 융성했다.⁵⁰⁾ 점찰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財施의 풍속으로 불교 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 서민층에도 확산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남의 집에 품을 팔던 김대성 모자가 興輪寺의 六輪會(占察)에 전 재산을 보시하였다.⁵¹⁾ 이처럼 신라사회에 불보살이 실존하고, 업설을 통해 신라인들이 작복과 국사, 사회, 가정과 자연생명 등 전반적 대상에 대해 고도의 철학에 뿌리를 둔 윤리적 의식과 행동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고대신앙으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국가질서와 삶의 정신적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V. 불교수용과정의 顯密交涉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밀교승 가운데 明朗은 서기 668년 문무왕의 청을 받아 밀교의 神印秘法(문두루법)으로써 침략하는 당병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였다고 전해진다. 명랑은 서기 632년에서 635년 사이에 당나라에 들어가 밀교를 수학하고, 귀국한 뒤에는 자신의

용하였다. 둘째, 福田思想이다. 공양을 통해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布施思想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보시관계, 즉 法施와 財施의 관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子母思想이다. 재가자들이 보시한 현물들은 이자(子)로 전환되면서, 자본(母)의 순환에 들어서게 된다(조명립, 「高麗時代의 寺院寶에 대한 考察」, 『구산논집』 제2집, 보조사상연구원, 1998, 371-373쪽;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教學報』 9, 불교문화연구원, 1972, 99~135쪽).

50)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教學報』 9, 불교문화연구원, 1972, 99~135쪽.

51) 『三國遺事』 卷5, 「大成孝二世父母」.

집을 金光寺로 바꾸었는데, 문무왕 10년(670) 당의 장수였던 薛那가 50만의 원정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 명랑은 경주 낭산의 남쪽 神遊林에다 비단으로 단을 짓고, 폴로 五方神像을 만들어 유가승 12명의 승려를 뽑아 신인비법(Mūdra)을 행하였다. 양국 군대의 교전이 있기도 전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당나라의 군함이 모두 침몰하였다 이듬해에도 당의 趙憲이 이끄는 5만의 군사가 침입했는데, 역시 신인비법을 개설하여 물리쳤다.⁵²⁾

밀교법의 호국성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어 광학, 대연같은 스님에 의해 사천왕사를 짓고 神印宗이라는 밀교종단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명랑과 같은 시대에 惠通이 있었는데, 당 유학 시 고종황제 공주의 병을 치료하였고, 이때 원한을 품은 蛟龍이 신라로 와서 사람을 해치자, 교룡을 굴복시켜 不殺戒를 주어 교화하였다고 한다. 이후 신문왕(681~691)의 등창과 효소왕(692~701)시절 공주의 병을 呪誦으로 낫게 했는데, 혜통은 효소왕대에 國師가 되었다.⁵³⁾ 밀교가 지닌 치병의 효험은 고려시대에 摠持業이라는 종파를 형성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처럼 밀교는 불교의 수용기에 기존의 토속종교를 수용하면서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로 초기밀교를 통해 주술적 측면에서 호국과 치병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인도의 밀교아사리인 善無畏와 金剛智 삼장이 들어와 胎藏界·金剛界의 부법을 선양하면서 많은 유학승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밀교를 수학하였다. 신라의 밀교는 신라화엄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연구되었으며, 義林禪師(701~?)를 비롯해 不可思議·玄超 같은 분들을 배출했고, 특히 의림은 선무외의 부촉 전법제자로 국사의 지위에 올랐고, 103세의 고령으로 신라사회에 밀교를 흥통하였다.

52) 『三國遺事』 卷5 「文虎王法敏條」.

53) 『三國遺事』 卷5 「惠通降龍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스님에 의해 선양된 태장계·금강계의 부법은 각기 밀교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설해진 것으로 양 밀교경전의 교주는 비로자나여래이다. 원래 비로자나여래는 顯敎의 法身佛로 『화엄경』의 교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상을 위시한 신라의 화엄학은 밀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의상이 신라화엄의 토대를 세운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밀교가 전해지면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현교와 밀교가 상호융합하여 신라사회를 건설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앞서 의상이 중국 유학 후 신라로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문무왕이 의상을 흠모하여 왕실의 사유지와 노복을 보시하려 했을 때, 의상은 국왕에게, “우리의 법은 평등하여 (직함의) 높고 낮음과 (신분의) 귀함과 천함이 없습니다. 『열반경』에 여덟 가지 깨끗하지 못한 재물에 대해 설하는데 어찌 왕실의 사유지를 가지며 어찌 노복을 부리겠습니까? 빈도는 법계를 집으로 삼고 탁발(사발농사)로써 곡식이 익기를 기다립니다. 법신의 지혜로운 생명은 이것을 빌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⁵⁴⁾라고 하여 국왕을 감화시켰다.

여기서 법신은 불교의 佛身사상에 있어 비로자나불을 가리킨다. 『화엄경』의 비로자나불(Vairocana: 遍照光明)은 그 명호에서 보이듯 태양이 널리 세상을 비추는 德化는 힌두교의 태양신 신앙을 보이는 쉬바 Śiva의 神格과 유사성이 있으나 불교경전의 비로자나불은 진리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法身으로서 무명을 벗어난 붓다의 지혜가 중생을 구호하는 德行으로 전화되어 있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현보살은 그러한 비로자나불의 진리적 항상성을 구도의 깨달음을 통해 사회에 중생구호의 普賢行을 실천하는 보살로 승화되어 있다.

관념적 진리성을 상징하는 법신이 중생계에서 보살의 몸으로 중생

54) 『大正藏』 제50권, 729b쪽.

을 구제하는 것은 化身이나, 現身사상에 속한다. 자장이 선양했던 오대산신앙도 사실상 산악신앙과 현신사상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삼국유사』의 「臺山五萬眞身條」와 「溟洲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불보살이 신라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설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신라 淨神大王 神文王 의 태자였던 寶川(687~?)이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하다가 서기 705년 경에 蔚珍國(경북 영해) 掌天窟로 자리를 옮겨, 아침 저녁 『隨求卽得陀羅尼』를 지송하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하고 있었다. 그때 굴신이 現身하여 ‘내가 굴신이 된지 2천년이 되었으나 오늘 처음으로 수구 진전을 들었다’고 하면서 菩薩戒 받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보천스님이 굴신에게 계를 주었더니 다음날 굴의 형체가 없어졌다.⁵⁵⁾

위에서 굴신이 받은 보살계는 곧 오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라의 토속신앙이 불교적으로 섭화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볼 때 현교에 해석을 둔 불보살의 現身신앙은 신라불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신사상 밀교의 범신은 현교와 밀교가 소로 범신의 한 주제를 두고 상호 소통한 신라불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설해진 양부부법이 중국에 전해진 이후 신라는 많은 유학생들이 당에 건너가 유학하였으며, 이후 신라사회에서 밀교는 고등종교로서 신라사회를 안정시키고, 불교문화를 발전하게 만든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현밀교섭의 양상은 불교수용 시기에 불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55)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 「溟洲 五台山寶叱徒太子傳記」.

V. 결어

동북아지역에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 중국의 종교는 산천, 하늘, 귀신과 천문, 점복 등의 토착신앙을 老壯의 도가사상과 결합하여 종교로서 道教의 초기형태를 형성하였고, 한반도와 인근지역은 3, 4세기 이후까지 여전히 국가의 지배원리로서 존속하였다. 불교의 유입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근의 종교와 정신문화를 자극하였고 고구려, 백제에 이어 가야와 신라도 불교를 수입함으로써 정치세력과 지배이념에 대한 큰 변화를 주었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동북아지역의 토착신앙 형태는 제천신앙과 더불어 별신앙과 모신신앙, 점복과 치병 등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의 경우 가야를 비롯한 삼국도 동일한 소재에서 신라의 경우 三山·五岳 등의 제사체계 등을 확립하여 독자적 사회를 지배하였다.

동북아지역에 불교가 지닌 토속신앙과의 친화적 속성은 발생지인 인도에서 3, 4세기경 성립된 밀교에서 성장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불교인 현교에 대해 밀교는 힌두교의 하늘과 자연, 천체와 제례적 요소들을 보다 진화된 불교의 사상체계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용된 것으로 대승불교의 밀교성은 불교가 동북아지역에 전해질 당시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에 접근한 토속신앙을 섭화하면서 불교의 고도의 철학과 정치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이끌었다.

가야를 비롯해 한반도의 삼국에 존재했던 토속신앙은 불교의 밀교신앙의 소재로 대치되었고, 이윽고 불교는 정치와 사회전반의 윤리와 삶의 철학으로 정착하면서 산악을 만다라로 해석하거나, 불보살의 現身思想을 통한 현실적 세계관을 형성하며 의상과 원효를 위시

한 불교사상과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밀교가 개입한 역할과 위상은 외래종교로서 불교의 한반도 정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밀교는 신라 이후 고려에 크게 번창하였고, 조선시대까지도 밀교 전적의 간행이 그치지 않았으며 오늘날 한국불교의 의례 대부분의 소재가 밀교로부터 나온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불교사, 밀교, 삼국유사, 주술, 진언, 사리탑신앙, 모신신앙

※투고일자 : 05. 23 심사일자 : 06. 07 게재확정일자 : 06. 11

〈참고문헌〉

〈원전류〉

- 『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大正藏』19)
『無垢淨光陀羅尼經』(『大正藏』19)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大正藏』21)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大正藏』21)
『高僧傳』(『大正藏』50)
『文殊師利發願靈驗錄』(法寶院, 1967)
『三國史記』
『三國史記』

〈단행본〉

- 고익진, 『한국 고대 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9.
_____, 『한국사회에 정착된 불교윤리 한국의 불교사상』, 동국대출판부, 1987.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82.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5.
_____,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金和經, 『韓國說話의 研究』, 영남대출판부, 1987.
羅景洙, 『韓國의 神話研究』, 敎文社, 1993.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 한국불교연구원 출판부, 1989.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4.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88.
서운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7.
홍기문, 『조선신화학연구』, 사회과학도서출판사, 지양, 1989.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논문〉

- 강인구,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 32, 1987.
- 강영경, 「한국 고대사회의 여성」, 『숙대사론』 제11·12합집, 1982.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의 관념」, 『한국민속학』 제25집, 민속학회, 1993.
- 곽만연, 「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 김동화, 「신라시대의 불교사상」, 『삼국시대의 불교사상』, 민족문화사, 1987.
- 김금자, 「단군신화의 연구」, 『인문연구』 13집, 영남대, 1991.
- 김상현,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정재각박사고회기념 동양학논총, 1984.
- 김성례, 「한국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생애사의 서사분석」, 『여성학』 제9호, 1991.
- 김영미,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성신학논집』 창간호, 1995.
- 김영태, 『신라불교 연구』, 민족문화사, 1987.
- _____, 「彌勒仙花考」, 『신라불교연구』, 서울 : 민족문화사, 1987.
- 金一權, 「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백제의 北辰妙見과 고려의 熾盛光佛 신앙을 중심으로」, 『佛敎研究』18집, 한국불교연구원 2001.
- 김정신, 「화랑도와 세속오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신라화랑연구』, 고려원, 1992.
- 김화경, <신라 건국설화의 연구>, 『민족문화논총』 6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84.
- 徐永大, <『三國史記』와 原始宗教>, 『歷史學報』 105輯, 歷史學會, 1985.
- 신성현, 「초기 계율 성립에 대한 문제」, 『한국불교학』 13, 한국불교학회, 1995.
- 이기동, 「신라사회와 불교-국가권력과 신분제사회와의 관련에서」,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 이기동, 「신라인의 신앙과 종교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통해서」, 『경주사학』 16, 1997.
- 이기영,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그 본질과 역사적 전개」,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출판부, 1982.
- 이도흠, 「『三國遺事』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양대한국학논집』 26,

1995.

이종주, 「東北아시아의 聖母 柳花」,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鄭璟喜, 「三國 시대 문화의 사회적 배경」, 『한국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정병삼, 「통일신라 관음신앙」, 『한국사론』 8, 서울대국사학과, 1982.

정병조, 「慈藏의 文殊信行 研究」, 『佛敎研究』 22집, 한국불교연구원 2005
_____, 「신라 법회의식의 사상적 성격」,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정승석, 「업설의 양면성과 불교 업설의 의의」, 가산학보 3, 1994.

조홍윤, 「무교사상사」, 김상일·김홍철·조홍윤, 『한국종교사상사』 IV,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연구의 문제와 방향」, 『三國遺事』의 新研究』 創刊호, 1980.

최종석, 「한국토착종교와 불교의습합과정 -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35집, 1998.

최창식, 「원시불교의 사회윤리사상 연구-초기불교에 나타난 재가신자의 생활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 한국불교학회,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Ancient Religion of Korean Peninsula and Buddhism in the age of Adoption of Buddhism

Cheong, Seong-joon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n peninsula stimulated neighboring religion. Koguryo(高句麗),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by importing Buddhism changed the ideology of politics, control ideas and moral cultures.

The category of indigenous religion of Northeast Asia area before the influx of Buddhism was beliefs of heaven along with stars, goddess and fortune telling and curing disease, etc, and most of those categories were found in Korean peninsula including Kaya(伽倻) that establish the religious rite system for their spirits of mountain, star, river and sea by their rulers.

The religious affinity of Buddhism toward other religion where Buddhism was propagated comes from Esoteric Buddhism(密敎) that was appeared in Gupta dynasty of 3rd-4th century in India. Contrary to Exoteric Buddhism(顯敎) adopted the elements of religious faith of Hinduism, like belief of heaven, spirit of nature, celestial bodies and shaman's rituals. The advent of Esoteric Buddhism was to drive for the Indian masses of low

understanding of religious belief to developed enlightenment of Buddhism. So just like the case of India the Esoteric Buddhism as Mahayāna idea made it possible to accept the foreign folk religion near to shamanism and introduced and developed Buddhism it to a political and social ideology and cultural philosophy.

Most of the folk belief in Korean peninsula were replaced by elements of Esoteric Buddhism, and it produced a unique culture found only in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interprets Odae Mountain as a Mandala that changed folk belief of mountain and establish the incarnation idea that those Buddha and Bodhisattva resides in real world of living beings, namely Silla state.

※ Key Words : History of Buddhism, Esoteric Buddhism, Period of Three State, Mantra, Dharani, Silla Buddhism, Belief of Goddess, Northeast Buddhism